

공공시설물디자인에 반영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이 지 숙(군산대 교수)

인간은 도시공간을 필요로 하고 도시공간 속에서 도시 환경을 인지하고,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도시디자인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들은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추진하고, 공공디자인 조례, 경관조례 등의 법령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공공디자인 중에서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유사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과 구조물이라 할 수 있는 도시의 공공시설물은 어떤 시설물보다도 다양한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즉 형태, 재질, 색채, 구조, 기타 및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자치체 중 광역시 3개, 도 1개를 선정하여, 발표된 디자인 가이드라인 중 공통된 공공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PPP평가항목에 따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 보관대, 버스정류장 쉼터, 블라드, 보호 휨스, 분전함·배전함, 가로등이다. 평가는 UD 7원칙과 경제성, 심미성, 환경문제의 3부칙으로 된 총 55가지 항목의 PPP평가를 이용하였다. 공공시설물 중 휴게시설에 속하는 벤치는 인체치수를 반영한 형태를 권하였지만,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다른 공공시설물에 비하여 적지 않으나 아직 미흡하였다. 노년층을 배려하여 팔걸이나 등받이의 유무를 결정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설치장소에 따라 유무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주는 지자체가 있어서 벤치디자인에 대하여 일관된 접근을 찾을 수 없었고, 디자인의 초기에 UD를 배려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휴지통 디자인은 바닥점유면적을 최소화하고,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다양한 사용자 키를 고려한 높이로 할 것을 권하는 등 휠체어 사용자, 노약자, 어린이 등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기능과 심미성을 갖출 것을 권하고 있다. 보행시설물인 버스정류장은 휠체어 사용자, 노약자, 시각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배려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다. 블라드의 디자인가이드라인에는 주로 약시자나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것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다. 자전거 보관대와 보호 휨스, 가로등에 대한 것은 주로 사고와 안전성 및 내구성에 관한 것이 많았고,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권하였다. 공공시설물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보면, 간결하고, 단순하면서 기능적인 아름다움을 갖출 것을 권하고 있다. 색상에 있어서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저채도 저명도의 색상을, 꼭 필요한 경우에 강한 색상대비를 권하고 있고, 가능한 한 반사재질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 공공시설물 디자인 원칙이나 방향을 보면, UD 디자인 원칙을 적용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시설물의 설계나 설치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 훨씬 많은 것들이 조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최대다수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공공시설물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유니버설 디자인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출발점이 UD 디자인에서 출발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